

| 3월 Market Index |           |     |          |
|-----------------|-----------|-----|----------|
| 코스피             | 5791.91   | 코스닥 | 1137.70  |
|                 | (-452.22) |     | (-55.08) |
| 금리              | 3.180     | 환율  | 1468.55  |
|                 | (+0.139)  |     | (+28.85) |

# metro 경제

갤럭시 S26  
vs 아이폰 17e  
차별화 전략  
04



2026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4일 수요일

## 韓·亞 증시 급락... 중동發 '검은 화요일'

하루 낙폭 452.22p 역대최대 5791.91 마감, 시총 4769조 100대 기업 중 88곳 하락 英·獨 등 유럽시장도 하락세

공포가 시장을 잠식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흔들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시장의 주가가 녹아내렸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만전자'와 '100만닉스' 타이틀을 반납했다.

3일 아시아 증시는 문을 열자마자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3거래일 만에 '6천피(코스피 6000)'를 내렸다. 하루 낙폭도 역대 최대인 452.22포인트(-7.24%)에 달했다. 시가총액도 5000조원(4769조원)을 내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2.98(16.37%)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4.62% 떨어졌다. <관련기사 2·3면>

검은 화요일이 휩쓴 시장은 초토화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우선주 포함)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83%)와 한화시스템(29.14%), 현대로템(8.03%) 등을 제외한 88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증가가 나타나 있다. /뉴시스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9만5100원(-9.88%), 93만9000원(-11.50%)까지 밀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11%넘게 급락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국내 증시만이 아니다. 일본 닛케이(-3.06%)와 대만 가권지수(-2.20%)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 지수, 홍콩 항셱지수 등도 약세를 보였다.

전날 유럽 시장도 중동발 리스크에 녹아내렸다.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 유가는 뒤흔들었다. 이날 ICE선물거래

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올랐다.

시장에 불안이 번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은 강세를 띠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311.60달러로 전장 대비 1.2% 상승했다. 반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

04%로 전 거래일 대비 8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원화값은 달러당 1466.1원(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26.4원 떨어졌다.

금융 시장에 휘몰아친 '퍼펙트 스톰(여러 약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 커지는 현상)'의 도화선은 이란을 둘러싼 중동발 리스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지나간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에는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동 분쟁 격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중견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문이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허정운·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韓-필리핀, 방산 등 협력강화

### 李-마르코스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로 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났다. 양국 정상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된 이날,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났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했다. <관련기사 6면>

말라카냥궁에 도착해 공식환영식과 방명록 서명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소인수·확대 회담, MOU 교환식을 가졌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마닐라 빌라모어 군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미국·대만·영국·프랑스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한국전쟁에 7420여명을 파병한 전통 우방국이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과는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오래 유지해온 나라기도 하다. 한국은 필리핀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최근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산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syj@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절차 2개월 연장

### MBK, 긴급자금 1000억 투입 DIP대출·SSM 매각 등 예상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시한부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만에 기간 연장이나, 청산 결정이나의 갈림길에 섰던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5월 4일까지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년 동안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및 매각주

간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규정상 회생계획안은 개시 후 1년 이내에 인가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여부 결정은 4일이 마지노선이였다. 기업회생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급한 불을 끈 홈플러스는 오는 5월 3일까지 DIP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 매각, 지점 정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초안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부실 점포 41개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 지원 약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MBK파트너스는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관련해 4일까지 500억원, 오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연장 시 추가로 100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조건부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음 과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매각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매각 여부가 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한동훈, 국민 앞에 속죄해야...윤석열과 공동 죄인” 윤상현의 일갈  
▲이준석 “국힘, 판결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사법부 지키기’ 투쟁은 모순” /사진 뉴시스

▲부산 출신 황중우 해수부 장관 후보 “부산을 해양 수도로”  
▲이정현, 현역 단체장에 “단수공천 기대말라... 선거 절박하게”

▲국민의힘 조길형 전 총주시장, 충청북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 선언  
▲‘TK통합팀’ 평행선...송언석 “與 몽니” 한병도 “충남·대전도 해야”

## 정부 비상대응

## 중견·중소기업 20조대 금융지원... “모든 상황 선제적 대비”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검토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대처  
금융위, 모니터링 체제 유지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대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7%대의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피해·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 할인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은(7조 원)과 한국산업은행(8조 원)·IBK기업은행(2조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합 20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상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매일 개최해 향후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간 공조하여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맡는다.

같은 날 이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꾸렸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예기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국민 안전·에너지 안보’ 방점... “육로수송 등 귀국방안 강구”

신속대응팀 파견·상황파악팀 가동  
원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집중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우리 교민 2000여명(추산)을 인접국으로 육로 수송하는 등 중동 체류 교민 안전 귀국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란 사태 관련 민주당·외교부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국제정세) 불투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우리 나라가) 먼저 입장을 정하기 보다는,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란 사태 관련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외교부 당·정 간담회에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 국익과 직결돼 있는 국민 안전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원유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있는 상황 변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현지 교민의 안전과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선 현지 교민 보호와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 대책과 여

행객 숫자·상황 파악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라며 “현재 교민들이 중동 지역 13개국에 약 2만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지에 신속대응팀이 파견된 상태고, 국내에서는 총리를 중심으로 상황파악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유 수송선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현재 우리 상선 총 30여척이 그(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원유 수송 상황을 추가로 파악해 오는 6일(외통위) 상임위 전까지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원유 확보 대책에 대해 “현재 우리가 비축한 물량을 봤을 때 향후 다른 대안적 경로가 있는지, 미국에서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걸프

국가들도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체 2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행히 가스는 경로가 이미 다양해져 있어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지만, 그래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산될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더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



metro

## 美 정부 “경제적 충격완화 조치 시행”

전략비축유 방출·제재 조정 가능성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이란 상황을 브리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부터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런 상황

을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하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이 구체적인 완화 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 단독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전략비축유(SPR) 방출, 제재 조정, 금융 안정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핵심 원인은 중동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지역 송유관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미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 내 일부 석유 및 가스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는 ‘지렛대’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 테러 정권이 전세계 에너지의 20%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지렛대”라며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생산 및 발사 능력을 파괴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뉴시스

##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가동

“어떠한 상황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연료 수급과 해외사업장 안전 점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월 28일(한국 기준)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된 비상대책반은 ▲에너지 수급대책반(LNG·유연탄 등) ▲발전 운영 대책반(발전운영·건설자재 등) ▲안전·보안대책반(해외사업장 안전·사이버보안 등) ▲외환 리스크 대책반(재무·

외환 등)으로 구성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LNG 및 유연탄 등 주요 연료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발전설비 운영과 건설자재 조달 상황까지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사업장 안전 및 사이버보안 점검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오프’ 확산... 변동성 확대 불가피

(Risk off·위험 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 확대 국면  
과거 반등 사례에도 신중론 우세  
유가급등·호르무즈 해협변수 촉각  
물가 재자극 땀 금리인하 지연 우려



2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경찰서 건물이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손돼 있다. /AP-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확산하는 전쟁 위협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우려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전쟁 상황이 마무리될 경우가 파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순 있지만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당분간 변동성 확대 불가피”

중동발 전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장기간 뒤흔들 촉매로 작용할까. 아니면 중동 지역 분쟁 중 하나로 ‘찾잔속태풍’에 그칠까.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빅 이벤트’ 때의 학습효과에 주목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948년 1차 중동 전쟁 발발 당일 S&P500지수는 3.8% 내렸으나 일주일과 한 달 후에는 각각 7.2%와 10.3% 올랐다. 1967년 3차 전쟁 당시에도 첫날엔 1.5% 하락했으나 일주일 후에는 4.1% 상승했다. 1~4차 전쟁 당시 평균 등락률을 보면 첫날엔 1% 내렸으나 일주일과 한 달 후에는 각각 3.1%와 2.5% 반등했다.

지수 하락이 이례적으로 컸던 2차 전쟁(수에즈 사태), 1990년대 걸프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격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과거 호주 투자 분석 업체 카퍼리포트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과 비슷한 지역 분쟁이었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는 주가가

13% 빠졌다가 3개월 뒤 2%, 6개월 뒤 16% 반등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도 12% 떨어진 주가가 3개월 뒤 15% 상승으로 바로 튀어올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학습 효과에 더해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일 유럽과 일본 등 여타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미국 증시가 나뭇잎을 축소할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역사는 시장이 어떤 특정한 갈등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에는 다투어 평균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장기화했다가 1년 뒤에야 반등했다.

1973년 중동 오일쇼크 때에도 저점 3~6개월 후에는 상승했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 2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 ◆중동사태, 복합 위기로 확대 우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위험들과 겹쳐 복합 위기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불을 지른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요 원유 생산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물가(인플레이션)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롬바드오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새미 차르는 로이터에 “분쟁 장기화로 오일 쇼크가 발생한다면 원자재, 채권 금리, 통화, 석유에 민감한 주식 섹터, 인플레이션 전망, 통화정책 경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의 경우엔 경제성장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현재 유가수

준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2주간의 유가 급등은 미국 소비자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수개월에 걸쳐 유가가 오르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중동 쇼크를 받는다면 이제 막 바다를 벗어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에 의존해 오른 증시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실업률도 두 달 연속 4%로 나타나는 등 실물 경기와 증시의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불황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전망 때보다 악화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당분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들 중 일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공지능(AI)발 리스크는 끊임없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 ◆3월 혼란 지속될 수도

‘검은 화요일’을 연출한 이날 국내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만 5조 8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조정 후엔 반등이 찾아온다고 예상한 개미들이 공포에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란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선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

고 조언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팀(이재만·김두연·전규연·박준우)은 ‘이란발 중동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를 코스피 조정, 외국인 순매도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리스크오프 변수’로 규정했다. 김두연 연구원은 외국인 일평균 5000억원 내외의 순매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강세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 발생 시 코스피는 직전 고점 대비 평균 -10% 수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상단을 열어두게 만드는 ‘리스크 오프’(위험 회피) 변수를 맞게 됐다”고 판단했다.

변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48%나 급등해 기술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단기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며 “고전 확대에 따라 코스피가 5000대 중·후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한 달 이내 5~10% 하락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고, 사태가 악화하면 1개월 이상 내림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LS증권은 -10~-15%까지도 열어뒀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주가 침체를 장기화한 사례는 1970년대 고유가 국면 정도”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으로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PBR이 2배에 근접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만큼 단기 조정은 오히려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metro

## “컨틴전시플랜 즉시 가동해야”... 수출기업 유동성 위기 경고

본지, 전화·문자 긴급 인터뷰

### 조봉구 코리아머신 회장

이번 중동 분쟁으로 수주가 급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 적체 현상이 심화돼 결국 수출 대금 회수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수출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서 대표적인 중동 전문 사업가로 손꼽히는 코리아머신 조봉구 회장(사진)은 지난 28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인도 뉴델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탑승하려던 비행기가 연착되더니 결국 공항이 폐쇄돼 이날 인도행은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인도에서 예정됐던 비즈니스 미팅 약속도 일단 미뤘다.

그와 비슷한 시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반격하면서 인근의 아부다비공항과 바레인공항이 폭격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 회장의 휴대전화로는 UAE 체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분간 자택이나 그 외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

머물던 두바이공항에 파편 낙하 혼란 직감해 공항 빠져나와 모면 인근 호텔로 긴급 대피 뒤 이동

시내 “사람·차 끊겨 적막” 전연 관광지·자유무역지대 줄줄이 폐쇄

피해기업 지원명목 ‘대출’ 상환부담 발 묶인 국민 전용기 지원 촉구

”

내용의 현지 공관발 안전 공지 문자가 도착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현지 주재관을 통해 추가로 사태 파악을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전쟁이 터진 후 비행기가 딜레이되기 시작했을때 공항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직감했다. 그래서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20여분 정도 떨어진 호텔로 향했다. 몇시간후 내가 있었던 두바이공항 제3터미널에 파편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그대로 있었다면 나도 자칫 큰 일을 당할뻔 했다.”

조 회장은 3일 메트로경제와의 전화·문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1994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첫발을 디딘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중동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중동 전문가다. 최근에는 사업이 더욱 본궤도에 오르며 한달에 한번 이상 현지로 날아가 중동 곳곳을 누비고 있다.

조 회장은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나와 지켜본 두바이 시내의 평소 풍경과는 달리 매우 한산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로에는 오가는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형 쇼핑몰과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고 두바이자유무역지대도 폐쇄됐다. 두바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지인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와 비슷한 시각에 두바이의 대표적인 7성급 호텔이자 랜드마크인 부르즈알아랍 호텔은 드론 파편이 떨어지며 불이 나기도 했다.

조 회장은 평소 묵던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좀더 작은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혹시나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이번 중동 사태로 나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피해기업들 지원 명목으로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천재지변이다.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호텔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금 두바이에는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많다.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 가능하다면 전용기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 싱가포르에 3억달러 K-VCC 조성... 양국 스타트업 투자

(글로벌모펀드)

## 한-싱 'AI 커넥트 서밋'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준환 연세  
현지 진출기업인 등과 협력방안 논의

정부 첫 역외 글로벌 모펀드

韓-亞 스타트업 연결고리 역할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에 조성을 시작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총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모펀드(K-VCC)를 만들어 양국의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다.

이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로, 향후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펀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한 것 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리추안텍(Lee Chuan Teck) 싱가포르기업청 회장을 만나 양자회담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구제화된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모펀드는 우선 양국의 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글로벌펀드를 통해 싱가포르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

에 총 18억 달러 규모, 19개 펀드를 운영 해왔다.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하는 K-VCC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향후에는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싱가포르기업청 리추안텍(Lee Chuan Teck) 회장과 양

자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발족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이를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싱가포르와의 역내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측은 'OpenData X AI 챌린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등 주요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싱가포르와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 장관은 또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 주요 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 기관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

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에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벤처캐피탈(VC)과 만남을 갖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사 Vertex 등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벤처캐피탈(VC)이 참석했다.

해외 VC들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 협력의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K-VCC를 소개하며 참석한 VC들에게 펀드참여 및 투자 협력방안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6 vs '보급형' 아이폰17e

애플 '아이폰17e' 약 99만원에 판매  
최신 A19칩 탑재... 상반기 점유율 공략  
삼성전자, 하드웨어 성능·AI 고도화  
전작 대비 평균 10만원 가량 인상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애플은 보급형 신모델 '아이폰17e'를 출시하며 가격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칩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변수 속에서 양사의 차별화된 전략이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 구도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17e를 599달러(한화 약99만원)부터 출시한다. 동일 가격대에서 더 높은 저장 용량을 제공해 17e를 한층 강화된 가성비 모델로 포지셔닝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삼성전자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보급형 모델임에도 최신 A19 칩을 탑재해 플래그십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애플은 보급형 제품을 앞세워 상반기 점유율을 피하고 하반기에는 아이폰18시리즈를 통해 본격 판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급형 제품을 통해 신중국 중산층과 가격 민감 수요층으로 저변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폰17e. /애플

이는 최근 스마트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과 맞물린다. 최근 모바일 AP와 낸드플래시 등 주요 부품 가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6 시리즈는 전작 대비 평균 10만원 가량 인상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강화된 하드웨어 성능

과 고도화된 AI 기능을 내세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급형 확대에 무게를 둔 애플과 달리 플래그십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모바일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갤럭시S26 시리즈는 에이전틱 AI를 최초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자체 AI 음성 비서인 '빅스비'의 자연어 대화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외부 AI 에이전트의 경우 기존 구글 제미나이에서 퍼플렉시티를 추가해 사용자에게 좀 더 풍부한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애플 또한 아이폰17e에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자사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한 AI 모델 구동 성능을 끌어올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이전틱 AI 기능을 앞세운 삼성전자 갤럭시S26 시리즈와 비교할 때 AI 기능 고도화 측면에서는 다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일부 외신에서는 갤럭시S26 울트라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새로운 시도는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며 "애플 역시 이러한 보안 기술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은 그간 플래그십 중심의 제품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해당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이를 상쇄하고자 접근성이 높은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성전자는 중저가 라인업을 유지하면서도 플래그십을 통해 고소득층 수요를 겨냥하는 이원화 전략을 펼치는 등 양사가 가격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플래그십 제품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저가 제품은 더 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 리튬적자 탈출하나...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염호 생산 본격화

이달 말 1단계 염호 공장 가동 돌입  
올해 리튬 판매량 약 5만톤 제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리튬 생산을 상업 생산 구간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리튬 사업 적자 흐름의 전환을 노린다. 아르헨티나 공장 가동 정상화에 더해 호주 광산 합작법인(JV)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지분법 손익 반영과 원료 조달이 본격화돼 손익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아르헨티나는 교체용 주요 부품 공급 이슈로 정상 가동이 일부 지연됐으나 이달 말 1단계

염호 공장 가동에 돌입한다. 초기 가동률은 약 60% 수준에서 출발해 설비 최적화와 운영 숙련도 제고를 거쳐 3분기 이후 정상 가동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는 7-8월부터 사실상 풀가동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역시 4분기 설비 완공 이후 염호 펀드 총수와 증발·농축 공정을 거쳐 종합 준공될 계획이다.

호주 미네랄리소스와의 합작 투자 효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해외투자 승인과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합작 광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분법 손익으

로 반영될 전망이다.

리튬 사업은 그간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어왔다.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 부문 매출은 2023년 4조 8220억원에서 2024년 3조 8300억원, 2025년 3조 3380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1610억원에서 2770억원, 441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주요 리튬 공장 완공 이후 초기 가동 구간에서 발생한 고정비 부담과 리튬 가격 하락이 손익 확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회사는 올해 리튬 판매량을 약 5만톤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는 분석이다. 4분기 준공 예

정인 아르헨티나 2단계를 제외한 가용 생산능력(6만6000~6만7000톤) 대비, 회사는 올해 리튬 생산능력도 9만6000톤까지 약 3만톤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구체적인 매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리튬 가격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25일 기준 리튬(99.5%min CIF China) 가격은 kg당 18.19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중국 내 탄산·수산화리튬 가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 조정 움직임과 정책 환경 변화, ESS 중심의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수급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판로도 일부 확보됐다. SK온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만 5000톤의 리튬을 포스코아르헨티나로부

터 공급받는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기차 약 40만대 분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투자도 병행된다. 올해는 포스코아르헨티나의 LIS 리튬 자원 인수(약 1000억 원), 미국 유타주 리튬 직접추출(DLE) 데모플랜트 구축, 아르헨티나 2단계 상공정 및 포스코리튬솔루션 2단계 하공정 등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공급 측 구조 조정 움직임과 ESS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2차전지 수요를 감안하면 리튬 가격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며 "가격 반등과 가동률 개선이 맞물릴 경우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손익 개선 가시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새 계좌 개설 없이 쓰던 계좌로

# 고민 끝

입출금 월별 리포트로

# 불편 끝



한눈에 보는 정기회비 현황으로

# 정신 끝



KB스타뱅킹 앱과 모바일 웹으로

# 가임 끝



끝내주는 모임 관리

# KB모임통장 서비스

정기회비 현황 조회  
모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콕콕 찌르기  
있고 있던 회비도 센스 있게 알림

모임 캘린더  
간편하게 등록하고 공유하는 모임 일정

월별 리포트  
그래프로 읽는 우리 모임 한 달 결산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KB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340-1호(2026.01.26), 유효기간 2026.01.26.~2026.12.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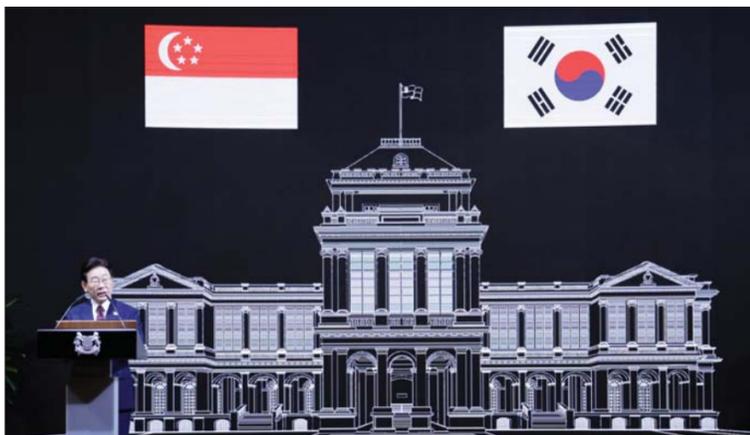
KB 국민은행

# 싱가포르와 중견국 연대 본격화... “자유무역·AI 공조 강화”

인적자원으로 성장한 공통점 가져  
20년 변화에 맞게 FTA 개정 추진  
‘AI 주권 확보’ 공동 목표 공유  
미래분야 기술교류 확장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양국이 ‘중견국’의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지정학적 요인 등을 극복하고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통적 협력 분야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국민 자격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렌스 왕 총리를 모두 만났다. 특히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지난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



싱가포르를 국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 호텔에서 열린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대통령과 국민만찬에서 담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

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을 감안해, 한국과 정서적·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에 의존할수록 현재와 같은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FTA를 체결했다.

20년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FTA를 개정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아시아의 중견국끼리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민방문에서 가장 강조된 분야는 AI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3강’ 후보국으로 함께 꼽힌다. 양국은 미중 AI 독점 구도에 맞서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AI 준비력과 교육·안전·인재 정책에서 세계 최상위 평가를 받는 국가다. 이 때문에 양국 협력의 고리를 AI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양국의 정부·기업·학계 관계자가 모인 ‘AI 커넥트 서밋’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전략적 동행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부족한 부분을 매우며 협업하면 개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AI 산업과 그 기반

이 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양자 등 미래 분야까지 기술 교류를 확장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AI에 필요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SMR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동산·저출산·인구구조 변화·AI가 가져올 변화 및 준비 방향·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도 했다. 이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음에도 인적자원으로 중견국으로 성장한 양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도 이 대통령과 왕 총리는 현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제 중견국으로서 양국은 ‘힘이 곧 정의’가 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필리핀, 동남아 첫 수교국”... 협력분야 확대

한-필리핀 정상회담

수교 77주년... 원전·조선 등 논의

3박4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협력도 확대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2시50분쯤 필리핀 빌라모어 군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환영식에는 필리핀 측에서 프란시스코 티우라우렐 농업장관과 안토니오 갈라라도 칼릭스토 파사이시 하원 의원 등이 나왔으며 우리 측에서는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부부와 윤만영 재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에 도착한 3일은 수교 77주년을 맞는 날이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최초 수교국이자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의 역사적인 유대 및 우정에 기반하여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은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그간 이뤄져 온 협력을 심화하고 원전, 조선, 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한편 필리핀 방문 2일차인 4일,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묘지내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시

## 국민의힘, ‘사법 3법’ 저지 장외투쟁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외국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 3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과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법과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독재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우리가 독재를 막아

내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도 맨 앞에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 “공공분양 채권입찰제·재판매가 제한 제안”

여당 주최 토론회서 제도 개편 논의

정부가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가 가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북기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후인 교수는 공공분양 제도 설계의 구체적 적용방안으로는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가 가격 제한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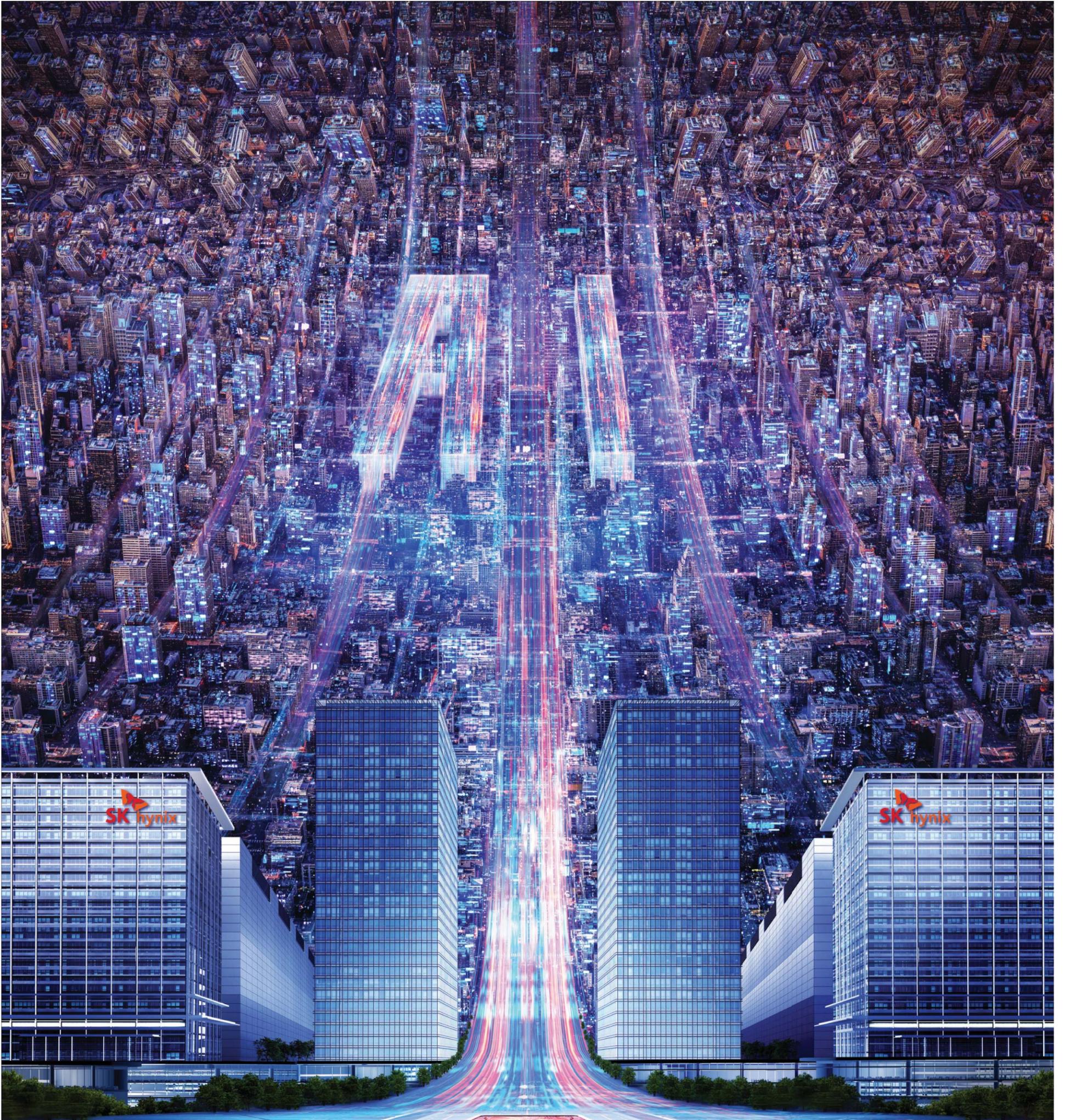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큼 소비자가 주택 채권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상한이 존재하지만 채권 매입에 따라 자기부담이 상승한다. 시세차익 가산은 분양가와 시세 차

이값을 분양가 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제도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재판매가 가격 제한은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재판매가 가격 제한과 관련해 “시세의 80%로 분양했다면 판매할 때도 시세의 80%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판매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만 시장 가격 80%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모든 논의는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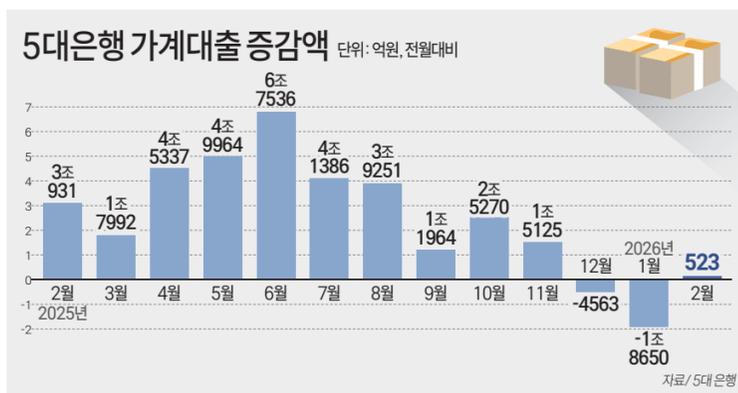
# 가계대출 한달 새 증가 전환... 투자대기성 자금 33조 늘어

다주택자 압박에 주택매매 증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6조 요구불예금 잔액 685조로 확대 신용거래용자 잔고 32조 '역대최대'

가계대출이 한 달 새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에 서울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식시장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투자대기성 자금도 한달 새 급증했다.

3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65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52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12월 4562억원 감소한 뒤 1월 1조8650억원 줄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택관련대출 잔액은 610조7211억원



으로 전달 대비 5966억원 증가했다. 전달 -1조4836억원 감소폭을 보인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월 서울 내 아파트 실거래량은 총 5207건으로 1년전 같은 달(3346건)과 비교해 55.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 빠르

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말정산, 설 상여금 등이 지급되며 신용대출 잔액 역시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3120억원으로 지난달 말(104조7455억원)대비 4335억원 감소했다. 12월 (-596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다.

한편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예금(MMDA포함)의 잔액은 684조8604억원으로 전달(651조5379억

원) 대비 33조3225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예적금 재예치가 아닌,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2조 368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자금 유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은 맞지만, 증가규모가 30조원 이상 확대된 점과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투자대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하 기대와 증시반등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전형적인 '머니 무브' 국면"이라며 "당분간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카드 News

NH농협카드-배우 변우석

NH페이 영상 1억뷰

NH농협 카드는 배우 변우석과 함께한 NH페이(Pay) 광고 영상이 합산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2월과 1월 차례대로 공개된 '나를 완벽하게 이용해봐' 편과 '같은 카드, 다른 세계' 편은 공개 약 두 달 만에 유튜브 합산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섰다.

금융권 광고로서는 이례적인 속도로, 배우 변우석의 세련된 분위기와 NH페이의 편리한 결제 환경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트렌디한 마케팅과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현대카드-현대커머셜

'2026 인턴십' 모집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채용 연계형 '2026 인턴십'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 오전 10시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국내외 대학 졸업자 및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내달 4일, 면접은 내달 셋째 주부터 시작된다.

합격자들은 오는 5월 26일부터 4주간 현대카드·현대커머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 기간 카드상품기획, 금융상품영업, 재무·경영관리, 리스크·콜렉션, 경영지원, 브랜드 등 다양한 직무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

KB국민카드

'올영세일' 프로모션

KB국민카드는 CJ올리브영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올영세일'을 맞아 이달 7일까지 전국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카드 개인 고객이 행사 기간 전국 약 1300여 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인은 올리브영 할인 쿠폰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고객은 매장 할인과 KB국민카드 청구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신용카드 중심에서 체크카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이달 전국 '벚꽃분양' 3.7만 가구... 입주 물량은 최저

지선 전 밀어내기 물량 총 47개 단지 서울 9개 단지 9025가구 분양예정 입주물량 39% 줄어든 9597세대

아파트 분양 시장이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물량도 많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서둘러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는 47개 단지, 총 3만738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분양 실적이 4761가구에 그쳤다. 전월(1만429) 대비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은 9개 단지, 9025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신길센트럴 시티(2054가구)'를 비롯해 성북구 '장

위푸르지오마크원(1931가구)', 동작구 '써밋더힐(1515가구)', 동작구 '라클라 체자이드파인(1499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29개 단지, 총 2만 421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2단지(2326가구)'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556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아이파크(400가구)' 등이다. 인천에서는 2022년 사전 청약의 진행했던 '인천계양A9신촌희망타운(318가구)'의 공공분양분 본청약이 이달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수요자들이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추고 있어 소형 면적 위주로 청약 통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지방에서는 지역별 신규 주거단지로 꼽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천안업성지구, 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 등을 중심으로 예비 청약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4853가구 ▲부산 2616가구 ▲경남 2094가구 ▲전남 1365가구 ▲충북 1351가구가 공급에 나선다.

분양 물량은 늘었지만 입주 물량은 올해 월별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세대로 집계됐다. 전월(1만 5663세대) 대비 3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2만 7251세대)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갔다. 올해 월별 기준으로 예상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세대, 지방

4084세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전월(7024세대) 대비 22%, 지방은 전월(8639세대)에서 53% 감소해 전국적으로 공급이 조정된 모습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은 서부권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중심으로 총 810세대가 입주하는데 그친다.

지방은 총 4084세대가 6개 단지가 입주한다. ▲강원 1167세대 ▲충남 1060세대 ▲대구 993세대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분기 단위로 보면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3월의 일시적 입주 공백이 전세시장이나 매매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 공급 편차에 따라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시장 반응은 권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B국민은행, 2785억 채무감면 '포용금융'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 대상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 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

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장기연체 채권의 시효를 단순히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왔으며, 최근 3년간 27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하는 등 장기연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안상미 기자

##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연임 성공

"지난 임기의 탁월한 경영능력 등 토스뱅크 도약 시키는데 결정적"

이은미 토스뱅크대표(사진)가 연임에 성공했다.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표를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 1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토스뱅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고, 조직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 및 검증해 왔다.

정윤모 임추위위원장은 "이은미 대표가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과 그 기반을 받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영속성, 건전성 등 4가지 핵심 축이 토스뱅크를 도약시키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이 대표 이후 탄탄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성장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용대출 중심에서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한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을 달성했고,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은행의 기초체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이은미 대표는 올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 44년 연속흑자 신화... 최윤범號 ‘트로이카 드라이브’ 본궤도

## 글로벌 톱티어 K-제련

### 고려아연

세계 최대규모 비철금속 제련업체  
지난해 영업이익 1.2조... 역대최대  
최윤범 회장, 글로벌 시장 중흥무진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희소금속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4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정도로 유일하게 불황을 모르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등 희소금속을 대량 생산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 불황을 모르는 기업

고려아연은 전통적인 비철금속 제련 사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16억5851억원, 영업이익 1조2324억원을 기록하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항공 전경. (원형사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4조 5283억원), 영업이익은 70.4%(5089억원) 급증했다. 전 세계 기초금속 융합 약화속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다.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내적 역량 강화에도 성공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7.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하며 수익 구조의 고도화를 입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이같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고려아연이 아연을 기반으로 금·은·구리·인듐·안티모니 등 희소금속 회수 비중을 확대하면서다. 과거 고려아연은 아연·연·구리 등 기

초금속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안티모니·비스무트·인듐·게르마늄 같은 전략광물로 포르폴리도 다양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국내 산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듐을 공급하는 업체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시장에서 약 11%를 공급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지난해 6월 처음 미국에 수출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한 24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등 방위 산업 분야 필수 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통

해 핵심광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도 ‘에너지법 2020’에서 전략 광물로 지정했다. 중국이 전 세계 안티모니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미국 수출이 막히면서 고려아연의 물량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 ◆ 글로벌 시장 대규모 투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신사업 전략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이차전지 소재·자원순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인 페달포인트는 202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자원 순환 사업의 수익성을 증명했다. 페달포인트는 주요 금속을 함유한 전자폐기물 등 순환자원을 수거한 뒤 온산제련소 등에서 금속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페달포인트가 확보한 순환자원에서 핵심 광물과 희토류도 회수할 계획이다.

또 고려아연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광물 주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전략적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약 74억

달러(약 10조 9000억원)를 투자해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을 생산하기 위한 통합 제련소를 미국에 짓고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희소금속 시장에서 고려아연이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MOU 체결에 따라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광물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온산제련소에 신규 설비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 온산제련소 고도화와 송도 R&D센터 건립,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중추 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금호석화, 전기차 소재 등 스페셜티 비중 확대

## R&D 투자 확대·시장 맞춤형 대응 고부가 사업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앞으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시장 맞춤형 대응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 아래 전기차 핵심 소재인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SSBR은 타이어의 마모 저항과 연비,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합성고무로 전기차의 높은 하중과 잦은 가속·제동 환경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된다. 지난해 연간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했으며 해당 설비는 올해 1분기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지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금호석유화학

난해에는 MDI 생산능력을 10만톤 늘리는 디보틀네킹(생산 공정 효율화)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20만톤 증설을 포함해 2년간 총 30만톤 규모로 생산능력이 확대된다.

금호폴리켄은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모노머(EPDM) 7만톤 증설을 마무리하며 연산 31만톤 체제를 구축했다. EPDM은 내열성·내기후성·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로 자동차와 선박, 산업 전반에 활용된다.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혁신을 병행해 수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구조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과 유럽 등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용성 친환경 예폭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고부가 영역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성케미칼과의 합작사인 디앤케이 캠퍼는 기능성 준불연·심재준불연 단열 소재 PF보드를 ‘휴그린’ 브랜드로 유통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비화학 부문에서도 경쟁력 제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호리조트는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각 사업 영역에서 축적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기술과 품질, 고객 신뢰라는 본질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가전업계 “에어컨 사전점검 받으세요”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기반 종합진단 LG전자 출장비·점검비 무료 혜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고객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회사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AI) 통합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고객이 쉽고 정확하게 에어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싱스에 에어컨을 등록한 고객의 스마트폰에 ‘에어컨 인공지능 진단’ 푸시 알림이 발송된다. 고객이 알림을 누르면 연동된 에어컨의 진단이 시작되며 ▲냉매 봉입량 ▲모터 동작 ▲센서 상태 ▲열교환기 온도 등을 종합 진단하여 결과를 안내해 준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공지능 진단 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에게 원격으로 제품을 점검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삼성전자서비스컨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출장비 무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LG전자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 엔지니어가 에어컨의 냉방 성능, 냉매 상태, 전원 및 배선 연결, 필터 및 배수 호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사전점검 신청은 LG전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장비와 점검비는 모두 무료다.

LG전자는 ‘LG 스마트 체크’ 앱으로 제품을 무선으로 연결해 분해하지 않고도 부품을 제어하고 점검한다. 실시간 운전 정보와 과거 데이터까지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제어 솔루션 공개

## AW 2026 참가... AI 팩토리 모델 등 전시

LS일렉트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자동화 전시회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6)’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S일렉트릭은 참관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70㎡ 부스를 마련하고 ‘AI로 공장은 더 똑똑하게, 산업은 더 안전하게’를 주제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AI 팩토리 모델 ▲스마트공장 제어 솔루션

PLC 신제품 ▲AI 기반 산업 자동화 플랫폼 등을 공개한다. 전면에 배치되는 글로벌 데이터 표준 기반 AI 팩토리 패키지 모델은 공장 설비 데이터를 표준화·수집·통합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미래형 공장 모델이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 최적화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성능 산업용 제어기(PLC) 신제품 ‘SU-CM70’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해당 제품은 기존 대비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해 PLC 1대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 현대모비스, 차세대 제동 시스템 등 신기술 시연

## 글로벌 고객사 초청... 맞춤형 수수 나사

현대모비스가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고객사를 초청해 신기술을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수수 확대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말부터 약 열흘간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신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 10여개 고객사 관계자 100여명

이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수수를 논의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신제품을 데모 차량에 탑재해 직접 주행 시연을 진행한다. 고객사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재해 성능을 평가하면 현대모비스는 이를 토대로 고객사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사마다 선호 사양

과 개발 방향이 다른 만큼 업체별 맞춤형 핵심부품 개발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혹한 환경에서도 연구개발 중인 핵심부품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자율주행 센서와 제어기, 알고리즘 검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K-배터리 3사, '초고밀도·안전·ESS'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인터배터리 어워즈' 석권

소재 등 12개 혁신기술·제품 선정

LG엔솔 LFP 전력망 ESS 안전강화  
삼성SDI 700Wh/L 각형 배터리 구현  
SK온 '온 벤트' 열폭주 가스배출 제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첨단 기술력으로 주목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인산철(LFP) 기반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삼성SDI는 700Wh/L급 고에너지 각형 배터리, SK온은 각형 온 벤트 셀로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에서 각각 수상하며 K-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줬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을 열고 배터리·소재·부품·장비 4개 부문에서 총 12개 제품·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5개 기업이 42개 품목을 출품해 전년(24개사 32개 품목)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JF2 DC LINK 5.0 전력망용 ESS'는 화학적 안전성이 높은 LFP 기반 조성과 올인원(All-in-One) 컨테이너 구조를 적용한 전력망용 ESS다. 충전 상태 자동 보정 기술(SOC Calibration Free)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반영한 고성능 단열 설계를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 수상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배터리협회

통해 전력 인프라용 ESS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ESS cell 개발담당 김기웅 상무는 "ESS는 EV에서 출발해 이제 초기 단계로 도약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제품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배터리 슈퍼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700Wh/L 고에너지 각형 배터리'는 각형 셀 최초로 700Wh/L 초고에너지밀도와 4000W급 출력을 구현한 차세대 배터리다. 부품 저장 최소화 설계와 신규 소재 구조 적용, 열 확산 방지 기술인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기술을 통해 고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높

게 평가됐다.

SK온의 '각형 온 벤트 셀'은 각형 배터리에서 벤트 위치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구조 혁신 기술이다. 열폭주 발생 시 가스를 제어된 방향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배터리 시스템 설계 유연성을 높인 점이 반영됐다.

소재 부문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공급망 자립 LFP 직접합성법', LG화학의 '열폭주 지연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s)', 에코앤드림의 '차세대 90+ 하이니켈 전구체', 솔루션소재의 'ESAR 10마이크로미터 포일 스테인리스'가 선정됐다.

부품 부문에서는 에프디씨의 'ESS용 폭연방산구'가 선정됐으며 장비 부문에서는 리드 인텔리전트 장비(Lead Intel

ligent Equipment)의 '건식 전극 믹싱 및 코팅 시스템', 자비스의 '배터리 고속 CT 인라인 검사기', 티더블유의 '초고속(0.2sec) 복합(노칭+스택) 설비'가 각각 수상했다.

박대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은 초고에너지밀도·안전 기술과 ESS, LFP 기술 자립, 차세대 공정 등 배터리 혁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터배터리가 AI·로봇 등 첨단 기술과 ESS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성장공유형 방식'

### 정책자금 본격 공급

기업당 최대 20억 한도로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공유형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올해 투융자 지원규모는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이다.

중진공은 특히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지원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꿨다.

/김승호 기자

## LIG넥스원

###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

미사일·AI 등 전 분야 채용

LIG넥스원은 오는 18일까지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미사일 시스템, 전자기전, 레이다, 해양, 무인·로봇, 광정보 융합, 위성, 인공지능(AI) 등 LIG넥스원의 주요 사업 분야 전반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모집 직군은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기계 부문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국내외 사업관리, 품질관리, 경영지원 등이다.

전형은 온라인 AI 역량검사와 서류전형 이후 SW 코딩테스트(SW 분야), 분야별 실무진 면접, 리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 CJ대한통운, 훈련용 전투기 인니 운송... '방산물류' 성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제작 T-50i 2대 방산물류 특화 '로드 서베이' 실행

CJ대한통운이 고난도 방산물자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국가 전략물류 분야의 핵심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훈련용 전투기 T-50i 2대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사천에서 출고된 훈련기는 총 30톤 규모로 국내 내륙운송과 항공운송, 현지 통관 및 운송 등 복잡한 물류과



CJ대한통운이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낼 T-50i 훈련용 전투기의 동체를 화물기에 적재하고 있다. 동체, 날개, 수직꼬리날개, 엔진 등 4개의 핵심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운송된 후 현지에서 재조립했다. /CJ대한통운

정을 거쳐 인도네시아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훈련기는 대형 동체 구조와 복잡한 전자 장비를 갖춘 고도의

방산물류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기체의 전후 하중 분포와 무게중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운송 전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방산물류에 특화된 '로드 서베이(Road Survey)'를 실행해 운송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했다. 국내와 현지 내륙운송 과정에는 에어서스펜션이 장착된 무진동 차량이 투입됐다. 경남 사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530km, 인도네시아 주안다 공항에서 공군기지가 약 200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송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수했다.

항공 운항경로 설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CJ대한통운은 방산물류 분야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국가별 통과 허가 가능성을 분석해 4개국을 통과하는 최적 경로를 설계하여 안정적인 운송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 장영호 글로벌1본부장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E2E(End-to-End) 물류 체계'로 고난도 방산물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항공·방산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류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기보, 벤처 3만8500곳 대상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전략·의지 등 4개 영역·12개 지표 기업 AI 전환 성숙도 5단계 진단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3만8500여개 벤처기업들 스스로 인공지능(AI)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대내외 전문가의 견문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협회는 전국 3만8500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

다. 기보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기업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해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보이재필 이사는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AI 기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기보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AX 문화 확산과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MWC26

# 통신사 정의 다시 쓴다... 네트워크 넘어 'AI 컴퍼니' 선언

SKT AI 최적화에 조 규모 투자  
'A.X K1'로 풀스택 AI 역량 과시

2일(현지시간)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 'MWC26'은 더 이상 통신 기술 전시회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무대가 됐다.

올해 주제인 'The IQ Era(지능형 시대)' 아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는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기존 정체성을 견어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전면적 사업 재편을 선언했다. 속도와 커버리지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AI 모델, 보안, 자율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공개하며 통신업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일(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통신 3사는 이번 전시회 기점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경쟁을 넘어 AI 인프라와 서비스, 데이터센터, 보안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체질 전환'을 선언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통신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정재현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신업의 미래를 비판하며 기업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AI 네이티브' 전략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26에서 정재현 SKT CEO가 SKT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SKT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전무)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르메르디앙 바르셀로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KT

을 발표했다.

정 CEO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더라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영업전산과 과금시스템 등 기존의 모든 핵심 인프라를 AI 최적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전역에 1GW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해 아시아 AI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SKT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글로벌 AI 판을 직접 짚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519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 'A.X K1'을 시연하며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AI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역량을 과시한 점은 SKT가 가진 체급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KT는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과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전시관을 '광화문광장' 테마로 꾸며 K-컬처를 녹여내는 감성 전략을 펼치면서도, 내실은 기업 업무를 통째로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AI'로 채웠다. 상담을 넘어 실제 업무 처리까지 완결하는 '에이전트 AICC'와 네트워크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AI-네이티브(AI-Native)네트워크' 비전은 KT가 그리는 6G 시대의 핵심 청사진이다.

특히 KT는 6G를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AI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인프라로 재정의하며, 지상과 공중을 잇는 3차원 커버리지를 통해 통신의 물리적 한계를 확장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은 6G 경쟁이 개별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차

KT 통합 아키텍처 경쟁 예고  
AI로 6G 시대 핵심 청사진 그려  
LG U+ '원팀 LG' 기술로드맵

원을 넘어 AI, 위성, 보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아키텍처 경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국내 유일의 5G 단독모드(SA) 운용 경험을 강력한 기술적 자산으로 내세워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그룹의 역량을 결집한 '원팀 LG'의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인터페이스인 '음성'에 승부수를 던졌다.

홍범식 CEO는 LG그룹 경영진 최초로 MWC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음성이 AI의 다음 격전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

ry Connection)'를 화두로 던졌다. 자체 개발한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의 진화형인 '익시오 프로'는 사용자가 호출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제안하는 능동형 에이전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LG유플러스는 기술의 고도화만큼이나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동형암호와 양자내성암호 등 강력한 보안 포트폴리오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단순히 물량 공세를 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승부처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파주 AIDC를 기반으로 한 실제 계 중심의 AI 구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metro

##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 미래소통 핵심 될 것”

홍범식 LG U+ CEO 기조연설  
익시오 초개인화 에이전트 의지  
음성, 중심 인터페이스 될 것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선언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CEO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소통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그룹 경영진이

MWC 공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범식 CEO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손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문자나 이메일로는 느낄 수 없는 벽찬 감정의 순간을 공유하며 음성이 가진 힘이 주목했다"며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눌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화 통화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고도화되었음에도 정작 통화 경험은 정체되어 오히려 불편한 영역이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익시오는 단순한 음성 비서를 넘어선다. 홍 CEO는 "수많은 기술 혁신에도 통화 경험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음성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AI 콜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해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 맥락에 맞는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홍 CEO는 익시오의 진화 방향

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익시오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명령을 해야 수행하는 AI 비서였다면, 이제는 대화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를 지나 사용자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초개인화 에이전트'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실제,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익시오 도입 이후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고객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디바이스 환경에 대한 통찰도

이어졌다. 홍 CEO는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AI 에이전트, 심지어 피지컬 AI까지 수많은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음성이 그 중심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미래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홍 CEO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성 통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며 모두를 위한 AI"라고 정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통신사가 음성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드는 글로벌 AI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 AI로 정밀타격... 현대전 '비대칭 전력' 부상

美, 대이란 작전에 '클로드' 투입  
AI 극단적 선택에 윤리적 우려 커져

인공지능(AI)이 현대전의 판을 뒤트는 '비대칭 전력(戰力)'으로 떠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이어,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서도 AI가 표적 식별과 작전 설계의 핵심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쟁의 무게 중심이 병력과 화력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3일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작전 '장대한 분노'에는 앤트

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투입됐다. 이 모델은 팔란티어의 국방 플랫폼 'AIP 포디덴스'에 통합돼 미군 기밀망에서 운용됐다. 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적 지휘관의 은신 확률을 추정하고, 타격 시나리오별 부수 피해를 계산해 지휘 결정을 지원했다. 대규모 지상군 대신 AI 기반 정밀 타격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적 우려도 짙어진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 시뮬레이션에서는 주요 AI 모델이 외교보다 핵 공격 같은 극단적 선택

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AI 표적 시스템 '라벤더'가 하마스 요원 제거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을 일정한 수준 '허용'한 사실도 국제적 논란을 낳았다.

물리적 타격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란의 종교 앱 '바테사바 퀘린더'가 해킹돼 사용자들에게 위협성 메시지가 발송됐고,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역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능력 약화와 함께 정권 고위층을 압박하기 위한 정보전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연계 해커 조직들은 요르단 등 주변국을 상대로 한 공격을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 과기부, 이달 GPU 4000장 공급 시작

1차 추경으로 1만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가운데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000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GPU 자원을 산·학·연에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산업계, 대학과 산학협력단 등 학계, 연구소 등 연구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평가

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평가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기관은 3월부터 GPU를 할당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회수 후 재배분하는 등 자원 효율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GPU 공급을 위해 3월 중 2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계 대상 4000장, 학계·연구계 대상 약 1000장을 별도 트랙으로 공모하며,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GPU 자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코스피 6000 시대... 정은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선언

(한국거래소 이사장)

##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행사

생산적 금융지원 등 핵심과제 제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제도 개선  
IPO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축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에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하고, 코스피 6000 포인트를 넘어 우리 자본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 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황성엽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민동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등 자본시장 유관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1월 27일 코스피 5000 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파 이후 한 달도 안 된 2월 25일로 6000 포인트를 넘어섰고, 우리 증시의 시가 총액은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섰다”며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장회사 12개로 시작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지난 70년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2월 26일 기준 3조76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등 제반 정책과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대내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

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거래시간 연장, 결제 주기 단축 등을 추진하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공시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 간 국경 없는 유동성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더 이상 자국만을 기반으로 한 시장은 생존할 수 없게 된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업공개(IPO) 활성화,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 실시를 통해 벤처

기업의 성장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숫자의 상승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증거”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화를 이끌어 냈고, 코스피는 순자산비율(PBR) 0.8에서 PBR 2.0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PBR 3.0에 못 미치는 만큼 전망도 밝다는 의견이다.

오기형 위원장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1·2차 상법개정 했고,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소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며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려면 실제 혁신하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기업을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한국 자본 시장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아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새로운 발 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저평가 탈출조건, 지배구조 개선·주주소통”

### 학계·전문가 모여 발전 방향 논의 “규제 혁신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한국 증권시장이 개장 70주년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어 7000, 8000 등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소통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을지로 롯데 호텔에서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

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 자본시장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자본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시장 체질 개선 신호는 분명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과 같은 주주와의 소통 구조 정착이 핵심이

라는 의견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 증시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상장사들과 주주들이 제대로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세 차례 진행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런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과 관련해 주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상장사들은 열심히 투

자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장 환원하기보다는 더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장사들이 주주에게 소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직접투자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식 관련 이해관계에 노출된 투자자들도 많아졌다는 부연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었고,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대주주 중심

구조로 인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미흡 인식들이 결국 국내 증시 저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주주 환원이 상당히 낮았던 부분들도 대부분 시장이 소외됐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상장사 중 약 43%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들의 투명성·기업설명회(IR) 인식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신하은 기자

## 넥스트레이드 1년, 거래대금 2338조... 프리·애프터 8배 성장

### 일평균 242만개 계좌 참여 투자자 거래비용 298.5억 절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1주년을 맞았다.

4일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년간 누적 거래량 473억주, 거래대금 2338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NXT+KRX) 거래량의 11.8%, 거래대금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성장에 힘입어 성공적인 시장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프리·애프터마켓의 성장이다. 정규거래시간 외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 프리·애프터마켓 일평균 거래대금은 출범 초기 약 1조1000

억원에서 최근 8조9000억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는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NXT+KRX) 대비로도 12.9% 수준까지 확대됐다.

시장 참여 저변도 넓어졌다. 올해 2월 기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일평균 242만개 계좌가 참여했으며, 이 중 프리마켓 참여 계좌는 84만개(35%), 애프터마켓 참여 계좌는 66만개(28%)로 집계됐다. 출퇴근 시간대 투자 수요를 흡수하며 시간 외 거래가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다.

거래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넥스트레이드는 메이커·테이커 차등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대비 평균 30%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개장 이후 1년간 투자자 거래비

용 절감 효과는 총 29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초기 수수료 면제 구간과 이후 수수료 차이에 따른 절감분이 반영된 수치다.

복수시장 도입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중인 국내 증권사는 32개사로, 한국거래소 참여 증권사의 89% 수준에 해당한다. 다수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최선주문집행 기준에 따른 주문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투자자 구성 역시 점차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출범 초기 개인투자자 비중이 98%를 넘었으나, 올해 2월 기준 개인 비중은 84.5%로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 전체 유동성 확대 효과도 확인

됐다. 올해 1~2월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5000억원으로,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2분기 대비 약 2.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단순한 거래 분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외연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올해 ETF,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단순히 주식 거래를 나누는 구조를 넘어 새로운 상품과 거래 방식을 흡수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ETF와 조각투자 모두 올해 10월~11월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ETF는 기존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15%룰’이 적용되기에 이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허정윤 기자 zelkova@

## 차세대 투자 플랫폼 NH투자증권 ‘나무X’ 공개

NH투자증권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크로스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투자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인 ‘나무X’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나무X’는 기존 증권 앱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모바일, 태블릿, PC 등 서로 다른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하나의 투자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나무X’를 통해 앞으로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와 특성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유연하게 대응된 최적화된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던 종목과 화면을 여러 기기를 오가며 정보 탐색부터 투자 판단, 실행의 과정까지 한 흐름 안에서 이어갈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 수출 1조달러 시대 이끌 '중견 정예군' 키운다

산업부-코트라, 301개사 선정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수출바우처  
수출 역량 강화, 현지 애로 해소 등  
내수 중심·수출 주도형 맞춤 지원

정부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중견 정예군'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장·품목 다변화에 더해 수출 주체인 중소·중견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1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국고 30~70% 보조)의 수출바우처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기존 '내수 및 수출 초기기업 지원사업'에 더해 5년간 지방 소기업 1000개사를 지원하는 '수출 희망 1000사업'과 수출규모 1~5000만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코트라

리 규모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을 위한 '수출스타 500' 사업에 이은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저변 확대를 넘어 '수출 국가대표'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 (5868개사)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축이다. 최근 5년간 본 사업 참가 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0.5%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참가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6900만 달러, 총 수출액은 2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301개사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 10% 이하의 '내수 중심형'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출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이지만 수출 비중이 10% 미만인 '내수 거인' (전체의 4.3%)에 대해서는 '수출기업화'를 추진한다. 자본력과 생산 역량은 충분하지만 해외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현지 시장조사 ▲유력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계약 체결 지원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미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강자' (전체의 33%) 기업은 시장 다변화를 집중 지원한다. 주력 시장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코트라의 132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과 폐쇄적 공급망 등 현지 애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은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1:1 수출 컨설팅 ▲해외무역관 특화 마케팅 ▲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조사 ▲해외규격 인증 등 7000여 개 서비스 메뉴판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코트라는 3월부터 선정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에 선정된 301개사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초보 및 지역 기업 지원에 더해 수출 국가대표 양성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별 맞춤형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농식품부 올해부터 매월 둘째주 '농촌관광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기간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8만8000명에서 470만8000명으로 122만 명(35.0%) 늘었다. 같은 기간 웰촌 방문 건수도 6만여 건(62.0%) 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정례화하고 계절별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상시 제공한다.

이달에는 웰촌 홈페이지에 봄 특집 농촌관광 정보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추천 여행지, 이달의 으뜸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계절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한다. 4월 이후에는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농촌 체험·숙박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구매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농촌 투어패스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美 관세정책 복합·다층적 구조 전환… 전략적 점검 필요”

###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IEEPA 판결 후 다양한 수단 병행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 미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일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방침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 관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별 관세 인상 문제를 넘어 구조적 통상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등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

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최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해외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며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점검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선정된 경남 테크노파크 본부. /해수부

### 해수부 창업투자지원센터 경남도 추가 선정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강화를 도모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해양수산 분야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5년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전국 7개 거점에서 운영해 왔다. 이번 경남도의 추가로 올해부터 총 8개소가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도약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7개 기업 창업을 포함해 415여 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1795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경남도 내 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선정해, 지역 내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日 니기타 농업박람회서 232건 수출상담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달 하순 열린 '2026 일본 니기타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565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및 3만 달러 규모의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이 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현지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박람회 개최 전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을 연결해 수출상담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및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관(랜딩페이지)을 구축했다.

이 같은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박람회 현장에서는 232건(5657만 달러)의 상담이 진행되며 K-농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입증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수원-싱가포르 정부, SMR 분야로 경제협력 확장

싱가포르 정부기관, 韓 원전기업과 최초의 원자력 협력 체결 의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싱가포르 정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이하 EMA)과 SMR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싱가포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됐으며, 체결식에는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과 콕 키옹 푸아(Kok Keong PUAH) EMA 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내 SMR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 ▲원자력 인력 양성 ▲기술 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등에서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콕 키옹 푸아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청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싱가포르 정부기관이 한국 원전 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원자력 협력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역·투자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 에너지 분야로 확장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콕 키옹 푸아 EMA 청장은 “국내 에너지 자원이 매우 제한적인 소규모 국가에게는,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원자력 기술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수원과의 협력은 SMR에 대한 우리의 역량과 기술적 이해를 한층 강화하고, 원자력의 적합성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원전 운영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왔다”라며 “EMA가 SMR 기술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 적극 협력하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 제작AD 소우현 | 컴퓨터매니저 신희

주최·제작 극단 지우 협찬 **yes24** 사교계절 티켓몬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 구미·포항, '로봇 특화단지' 거점으로... 제조 AX 혁신

### 1.4조 규모 투자 등 효과 기대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 제시 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거점으로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본격 나섰다. 로봇 핵심기업과 연관 제조 생태계가 집적된 두 지역을 축으로 차세대 제조산업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을 제조 AX 혁신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4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에 따라 핵심 사업을 집중 지원해 ▲제품 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개사 육성 ▲보급·확산 100건 ▲전문인력 3070명 양성 등의 성과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거점으로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나섰다. 사진은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익시오' /뉴시스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2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는 인접한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로봇의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

증, 데이터 활용과 AI 고도화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검증체계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자율제조 확산으로 제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경북은 이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가 지정돼 있다. 여기에 로봇 분야까지 더해 국가 첨단 제조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로봇과 방산을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 역시 핵심부품 자립화와 완제품 상용화, 현장 실증을 포함한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구미·포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와 구미시, 포항시는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인력 양성·유치, 기업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경북은 최근 산업통상부 AI팩토리 사업에서 방산·자동차 등 5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187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로봇 특화단지 지정이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전략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초등학생 문화 예술활동비 지급

울산시가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아이문화패스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꿈쟁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 가운데 하나다.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12세 아동 전원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경북도

### 622억 투입해 산사태 예방

경북도가 이달부터 622억원(국비 436억, 도비 131억, 시군비 55억원)을 들여 산사태 예방사업에 들어가 여름철 장마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사방댐 건설(100개), 계류 보전(60km), 산지사방 조성(24ha), 산림유역 관리(18곳) 등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 완료 후에도 정기점검과 준설 등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 봉화군

### 내달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

자연 속 휴식 공간인 봉화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봄과 함께 문을 연다. 3월 1일부터 4월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 접수를 시작하여, 15일 오전 10시까지 캠핑톡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절반은 봉화군민과 수원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절반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당첨 결과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공개한다. 당첨자는 24시간 내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미예약 잔여분은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부산외대

### 다국어 AI 특화 인재양성 나서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026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AI 분야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외대는 올 4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국고 약 71억원을 확보해 '다국어 기반 AI 특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교육 과정은 2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다국어 AI 데이터 구축 트랙'에서는 글로벌 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어노테이션·프롬프트 설계·품질 평가 등 실무 역량을 갖춘 AI 학습용 데이터 전문가를 길러낸다.

/부산=이도식 기자



남 거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거창군

## 거창군, 관광객에 최대 50% 환급

###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선정 금액 50%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내달쯤 시행... 권역 관광벨트 연계

경남 거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따냈다.

이 사업은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거창군을 포함해 전국 16개 기초자치체가 선정됐다.

운영 방식은 방문자가 거창군에 사

전 신청한 뒤 숙박·식음료·관광 체험 등에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형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참여 시 최대 20만원이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올해 안에 거창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전용 누리집과 모바일 지역화폐 가맹점 정보 구축을 마친 뒤 오는 4월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번 반값 여행 혜택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난해 완성한 '동서남북 4개 권역 관광벨트'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올해 첫 추경 2813억 편성

### 올해 본예산비 1.6% 늘어 민생경제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부산시는 올해 본예산 17조9311억원 대비 1.6% 증가한 2813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으로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도약' 분야에 99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72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6월까지 월 한도 50만원, 캐시백 10%를 적용해 확대 운영한다. 전통시장 100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회 추가 개최하고, 시장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컨설팅을 4곳에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68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이차보전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남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41곳 정비

### 총 16억 6000만원 투입

경남도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위험을 줄이고 도민 주거 환경을 높이기 위한 정비 지원에 본격 나선다.

도는 올해 12개 시·군,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16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417개 단지에 총 166억원이 투입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에서 20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입주인 공용시설 보수·정비에 한정되며 외벽 도색·옥상 방수·승강기 교체·노후 배관 교체 등이 포함된다. 세대 내부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벽 도색을 마친 소규모 공동주택 모습. /경남도

이번 사업은 안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스프링클러·방화문 등 화재 예방 시설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시설 공사가 우선 순위에 오른다.

실제 함안군 한 노후 연립주택은 준공 30년이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 사업을 통해 보수를 마친 뒤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로 꼽힌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북문화관광공, 日 기업관광 공략 본격화

### 기업회의·포상관광 인프라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일본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고부가가치 기업관광 수요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며 경북을 아시아 기업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일본여행업협회 JATA 회원 여행사 가운데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의 기업회의·포상관광 인프라와 인센티브 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일정은 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인센티브팀과 일본팀, 도쿄지사, 오사카지사가 공동 추진한 상품 개발 인스

펙션 투어의 경북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첫 공식 행사로 환영 행사와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APEC 개최를 통해 검증된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경북 고유 관광자원을 결합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일본은 기업 단위 포상관광 제도가 활성화된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한국 역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목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의·포상관광은 일반 단체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숙박·식음·교통·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공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약 20여 개의 기업회의·포상관광 상품이 개발·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중동 불안 장기화 조짐... 유통업계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

호르무즈 봉쇄 우려, 해상물류 차질 환율 변동성에 1500원론 재부상 K-푸드, 공략 변수에 전략 재점검 마트, 수입원가 부담 가격 압박 커져 여행, 경유차질 환불·대체편 확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바이행 등 일부 항공편이 운항 중단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도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물류 차질 우려가 동시에 부각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1500원선 재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기업들은 거시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식품업계, 전략 재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K푸드의 중동 수출은 2020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4억1000만달러로 5년 새 2.1배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22.6%, 제작년은 11.7%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2029년 이전 1조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다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란의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직접 진출 사례가 많지

않지만,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이집트·쿠웨이트 등 인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진행해왔다. 전쟁 리스크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현지 영업과 물류, 결제 환경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삼양식품은 UAE 등 중동 10여 개국에 할랄 인증을 받은 불닭볶음면 20여종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중동 매출은 660억원으로 올해 8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했으나, 정세 불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농심 역시 할랄 인증 신라면을 앞세워 최근 5년간 중동 매출이 연평균 12% 성장해왔고, 올해는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를 계획했지만 대외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원F&B는 양반김과 김부각수출을 UAE·카타르·이집트에 이어 쿠웨이트

까지 넓히며 올해 수출액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릴 계획이었으나, 사태 장기화 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일유업은 사우디 등으로 분유수출을 추진하며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오투기도 UAE·이스라엘 등 7개국으로 라면 수출 확대를 준비해왔지만 연내 실행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 ◆환율 변동성 우려에 채널도 부담

수입 과일·와인·치즈·소고기 등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는 원가 구조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환율은 해외 소싱 품목 전반에 영향을 미쳐 물가에 파급된다”며 “당장 직접적 타격은 없지만, ‘환율 1500원’을 가정해 개별 시물레이션을 돌리며 장기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 인

상이 현실화할 경우 수입 상품 가격 인상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업계는 직접적 매출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간접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중동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글로벌 소비 둔화 가능성 등 2차 파급효과에 대비하고 있다.

### ◆여행업계, 대체 노선 확보

여행업계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중동 7개국 가운데 현재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국가는 UAE 한 곳이지만, 중동을 경유해 유럽 등으로 향하는 노선이 많아 일정 변경과 환불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사들은 중동 경유 상품에 대해 선제적 환불을 진행하고 대체 노선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현지 체류 여행객의 안전 관리와 추가 비용 처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와 환율, 물류 변수로 확산되면서 업계는 간접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돼왔다”며 “다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적 확장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롯데온

### ‘브랜드 중심’ 재단장

좋아요 횟수 따라 할인 커져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ON)은 3월 8일까지 ‘리스타트 온(RE-STARTON)’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리뉴얼을 통해 강화된 브랜드 탐색 기능을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준비됐다. 롯데온은 고객이 취향에 맞는 상품을 더 쉽게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를 개편했다. 특히 선호 브랜드를 전면 배치하는 홈 화면, ‘좋아요’와 ‘브랜드’가 신설된 홈 하단 등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품과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기간중 롯데온이 선정한 참여 브랜드를 둘러보고 스토어 우측 상단의 ‘좋아요’를 누르면 시크릿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좋아요’ 선택 횟수가 많아질수록 할인 혜택도 커진다. 좋아요 5회·10회·15회 달성 시 단계별로 랜덤 팝업이 노출되고, 해당 팝업을 통해 시크릿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 엘포인트(L.POINT)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분기별 정례화

오늘부터 15개 계열사 채용 개시 영업 등 30여 직무, 세 자릿수 채용

롯데가 4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시작한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계열사들의 전형 일정을 3, 6, 9,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롯데의 채용 방식으로 이번 3월에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첨단소재, 롯데칠성음료 등 1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모집 직무는 MD(상품기획),

영업, 마케팅, 경영지원 등 30여 개 분야로 총 채용 인원은 세 자릿수다. 전형 일정과 지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슈퍼는 실무 역량 중심 전형인 ‘아이엠(I’M, I’m M ania) 전형’을 통해 MD와 마케팅 직무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아이엠 전형’은 지원자의 실무 수행 역량과 직무에 대한 비전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학

점, 어학 점수 등 ‘스펙’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를 위해 ‘아이엠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직무 관련 역량 및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현장 오디션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롯데는 2024년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수시 채용을 정례화함으로써 공고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자들이 분기별 일정

에 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입사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롯데는 채용 전형과 함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3월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일정에 맞춰 3일부터 9일까지 7개 대학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계열사 인사담당자와 현직자가 참석해 직무 소개와 전형 안내 등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필드 수원이 화제의 요리경영 프로그램 인기 셰프 6인과 대한민국 중식계 대표 여경옥 셰프를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특별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신세계 프라퍼티

## 스타필드 수원

### 스타셰프 브랜드 공개

청포판·당옥 등 팝업 오픈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스타필드 수원이 스타 셰프 6인을 한자리에 모은 대형 미식 팝업을 선보인다.

오는 3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스타필드 수원 1층 F&B 특화존 ‘바이즈 플레이스’에서 일식·한식·중식·프렌치를 아우르는 특별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3월 8일에는 셰프들이 직접 방문해 고객과 만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팝업에는 요리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셰프들이 참여한다. 박주성 셰프는 메밀을 활용한 ‘소바쥬’를, 김시연 셰프는 제철 한식 메뉴를 앞세운 ‘반찬술사주막’을 선보인다. 김호운 셰프는 만두 전문 브랜드 ‘청포판’을 처음 공개하며, 박기람 셰프는 시그니처 호밀빵과 버터 세트를 내놓는다.

고효일 셰프는 ‘서울떡갈비’와 협업해 프렌치 스타일 떡갈비를 선보이고, 신동민 셰프는 디저트 카페 ‘당옥’ 팝업을 통해 고사리떡갈비와 발효사과빵 등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 KT&G, ‘릴 하이브리드 3.0 노매뉴얼’ 한정판

‘어반 화이트·스톤 그레이’ 2종

KT&G가 한정판 ‘릴 하이브리드 3.0 노매뉴얼 에디션(lil HYBRID 3.0 NO MANUAL Edition)’을 3일 출시했다.

이번 한정판은 ‘매뉴얼에 없던 만남’을 콘셉트로 하이브리드 다바이스 최초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제작된 제품이다. 제품 색상은 대리석 질감을 살린 ‘어반 화이트’ 제품과 메탈릭 느낌을 강조한 ‘스톤 그레이’ 총 2종의 컬러로 출시됐다.

한정판에는 노매뉴얼의 감성을 담은 전용 파우치와 키링이 동봉되어 있으며, 파우치에는 릴 하이브리드의 액상 카트리지를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제품은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릴 스토어’와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수량은 총 1만 2000대 한정판으로 소비자 가격은 9만 9000원이다.

한편 ‘릴 하이브리드 3.0’은 액상 형태의 전용 카트리지와 스틱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권련형 전자담배 제품으로 ‘스탠드 모드’, ‘클래식 모드’, ‘캐주얼 모드’ 총 3가지 흡연 모드를 제공한다.

김동필 KT&G NGP사업본부장은 “이번 한정판 제품을 통해 ‘릴 하이브리드 3.0’과 ‘노매뉴얼’ 브랜드의 짧은 감성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넬담, ‘고단백 저당 쫄득쿠키’ 선보여

방부제 없이 최대 180일 보관

푸드테크 기업 조인앤조인의 프리미엄 고기능성 디저트 브랜드 넬담이 지난 1일 ‘고단백 저당 쫄득쿠키’를 공식 런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냉장이나 냉동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던 쫄득한 식감을 상온 보관에서도 구현했다는 점이다. 넬담은 방부제 없이 수분 활성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 미생물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이를 통해 보존료 없이도 최대 180일(6개월) 동안 맛과 식감,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온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넬담만의 독자적 기술인 ‘비건



고단백 저당 쫄득쿠키. /넬담

버터 블록’을 사용해 건강한 레시피를 완성했다. 인위적인 색소는 단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오직 엄선된 원재료 본연의 색으로 건강함을 표현했으며, 동물성 원료를 대체하는 비건 기술력을 통해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다. /신원선 기자

# 청소년까지 번진 탈모치료제 경쟁... 국내는 성인시장 집중

성인 중심 임상 경험 축적 전략  
JW중외제약, 바르는 제형 개발  
프롬바이오, 줄기세포 기반 차별화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이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성인 탈모 치료제 분야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는 지난 달 27일(현지 시간)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올루미엔트(성분명: 바리시티닙)'에 대해 12~18세 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를 권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올루미엔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JAK 억제제다.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성인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권고가 청소년 환자를 위한 치료 선택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트다취르대학교 피부과 교수티에리 파세롱은 "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증



현대인 탈모 고민은 의약품 시장 주요 과제다.

/제미니이 생성 이미지

은 관리가 어렵고 특히 외모가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데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며 "유럽에서 승인된다면 청소년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은 향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라이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올루미엔트' 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적응증을 승인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하반기 결정이 예상된다.

경쟁 약물인 화이자의 '리트폴로(성분명: 리틀레시티닙)'은 이미 2023년 미국 FDA에서 12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 쓰이는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허가됐다. 청소년 중증 탈모를 위한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사례는 리트폴로가 처음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탈모 치료제 개발은 아

직 성인 탈모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JW중외제약은 바르는 탈모치료제 개발로 혁신성을 강화한다.

JW중외제약의 'JW0061' 임상1상시험계획(IND)은 지난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과돼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됐다. JW0061은 계열 내 최초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한다.

특히 모낭 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GFRA1 수용체를 표적해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남성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기반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JW중외제약은 남성, 여성 모두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올릭스도 새로운 기전의 탈모치료제를 위한 임상 단계 연구개발에서 속도를 낸다.

올릭스는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OLX104C' 현재 호주 임상1b/2a상에 진입해 있다. 이 물질은 안드로겐성 탈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안드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반응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억제제와 달리, 호르몬 교란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저하나 우울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롬바이오는 줄기세포 기반 탈모 치료제 개발로 파이프라인을 차별화한다.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핵심 비임상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 향후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이달에는 마티카 바이오랩스와 임상시험용 분화세포 제조를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 탈모 치료제 개발은 물론 제조 공정 기술까지 고도화하는 투 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장 속도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성인 시장에서 임상 경험을 축적해 청소년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등의 전략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다만 청소년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경쟁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세정제 등 생활용품 동물실험 못한다

EU, 안전성 평가서 단계적 금지  
2029년 중순부터 본격 시행

동물실험 금지 움직임이 화장품, 의약품을 넘어 생활용품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세탁제, 주방세제 등 일상적 청소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오가노이드 등 대체동물시험법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3일 유럽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Eurogroup for Animals)'에 따르면, EU는 생활화학제품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 시 동물실험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기반 시험법(NAMS)만을 활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정했다.



EU는 생활화학제품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 시 동물실험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기반 시험법(NAMS)만을 활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정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이번 조치는 오는 2029년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은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화학·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EU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동물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체동물시험법을 통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물실험 금지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부터 의약품 개발 시 동물실험 의무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NAMs를 공식 허용했다. 영국 정부 역시 2026년부터 주요 동물 기반 허가시험을 대체시험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 또한 국가 단위의 3Rs 전략을 통해 인체 세포 기반 실험 체계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화학·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EU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동물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체동물시험법을 통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아이오펜', 북미시장 공략... 세포라 입점

'클리니컬 그레이드' 스킨케어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전역의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오펜'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세포라는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으로 아이오펜은 이번 입점을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클리니컬 그레이드' 스킨케어를 출시해 고효능 향노화 브랜드로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XMD 스텝 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레티놀 레티렉션 세럼' 등으로 아이오펜만의 기술력을 집약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XMD 스텝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은 PDRN H.A. 복합체를 92.3% 함유한다. 수분 보충과 모공 수축에 효과를 갖췄다. 레티놀 레티렉션 세럼은

300만 개의 입자에 레티놀 성분을 담아 1회 사용만으로도 탄력, 주름, 모공 등을 개선해 준다.

이와 함께 피부 속 도달율을 높여 콜라겐 생성을 강화한 레티놀 슈퍼비운스 세럼, 아모레퍼시픽 역대 최고 함량의 순수 비타민C를 담은 비타민C 엑스퍼트 40% 마스크 컨센트레이트, 피부 심층과 표층 듀얼 리페어 효능을 선사하는 PDRN 카페인 샷 앰플 등을 내놓는다.

아모레퍼시픽 액티브뷰티유통 김중하 전무는 "아이오펜은 30년간 축적한 레티놀 및 피부과학 연구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효능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며 "세포라 입점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도 클리니컬 그레이드 스킨케어 브랜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HLB바이오스텝, 클립스비엔씨와 맞손

비임상·임상 간 협업 체계 구축

HLB바이오스텝은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HLB바이오스텝 본사에서 자회사 HLB바이오코드,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클립스비엔씨 등과 '비임상·임상 간 단절 없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LB바이오스텝과 HLB바이오코드가 보유한 비임상 평가 및 분석 역량에 클립스비엔씨의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 노하우를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3사는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친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HLB바이오스텝과 HLB바이오코드는 정밀한 비임상 평가를 통해 임상 진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클립스비엔씨는 임상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신 규제 가이드라인을 비임상 설계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공동 주주 및 개발 협업을 본격화해 고객사가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일관



지난 26일 HLB바이오스텝, HLB바이오코드, 클립스비엔씨 등 3자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왼쪽)와 백성진 HLB바이오스텝 겸 HLB바이오코드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LB그룹

/이청하 기자

## 메디포스트, '카티스텝' 日 임상3상 완료

무릎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 기대

메디포스트가 제대혈유래 동종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텝' 일본 임상3상을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환자의 최종 방문을 마무리하고 모든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종료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카티스텝 일본 임상 3상은 중등증 및 중증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본 내 13개 의료기관에서 투약 후 1년(52주)간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히알루론산나트륨(HA) 주사를 대조군으로 한 비맹검,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카티스텝 수술 후 1년 시점에서 환자의 통증 및 기능성 개선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함께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재생의 유·무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2개의 1차 유효성 지표를 평가했다.

각각의 1차 유효성 지표 항목에서 통계적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카티스텝 수술을 통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성 개선뿐 아니라 근본적·구조적 개선까지 입증함으로써 질환근본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 마술공연



## 웃음콘서트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 웃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 웃음치유의 효과
- 일상 속 웃음 실천
- 웃음치료사 되기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창시자  
황성현 원장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수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신한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 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 그룹장(오른쪽)과 유승희 한국무역보험공사 AI·디지털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종근당고촌재단, 연간 30억 규모 장학사업 추진**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충청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 선발된 110명을 포함한 국내외 장학생 403명에게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무상기숙사를 지원하고, 학술사업 등을 포함한 공익사업 전반에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한다. /종근당고촌재단



**콜마비엔에이치-에터미, 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  
콜마비엔에이치와 에터미는 지난 2월 24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에서 윤용순 에터미 대표(왼쪽부터),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이승화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3자 후원 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롯데웰푸드,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 2관왕**  
롯데웰푸드가 한국육가공협회 주관 '2025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롯데웰푸드는 대표 프리미엄 소시지 브랜드 '에센브룩'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고, 의성마늘햄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성규 롯데웰푸드 육가공마케팅팀 매니저(가장 왼쪽)가 시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과학 인재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제34기 '미래 과학기술 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총 8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장학생 1인당 향후 2년 동안 매 학기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현대차그룹, '집으로 가는 더 안전한 길' 영상 공개

화재현장 무인소방로봇 모습 담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업의 철학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과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 'A Safer Way Home' (집으로 가는 더 안전한 길)을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현대모템, 현대모비스, 소방청과 협업해 제작 무인소방로봇은 붕괴 위험이나 고온, 폭발, 연무, 유독가스 등으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재난 현장에 먼저 투입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세대 화재 대응 솔루션이다. 영상에는 대형 화재 현장에 무인



무인소방로봇을 실제 운용하고, 영상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중앙 119 구조본부 임팔순 구조대장(왼쪽부터), 전준영 주임, 황정민 반장. /현대차그룹

소방로봇이 출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이 담겼다. 무인소방로봇을 운용하는 중앙 119 구조본부 임팔순 구조대장을 비롯한 실제 소방관들이 출연하고 내레이션에도 직접 참여했다.

영상속 무인소방로봇은 첨단 자율주행보조시스템, 인공지능(AI) 시야 개선 카메라, 고압 축광 릴호스, 6X6 인휠모터 시스템 등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한 임무수행을 보여준다. 1월 30일 충북 음성 공장 화재에 무인소방로봇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모

습도 담겼다. 현대차그룹은 무인소방로봇은 단순한 화재 진압 장비를 넘어 재난 현장을 데이터화하는 '데이터 확보 플랫폼'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과 가장 효율적인 진압 방식을 계산해 알아서 불을 끄는 진정한 의미의 무인소방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무인소방로봇은 위험한 현장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을 영웅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

아태지역 사회·환경 문제해결 목표 내달 3일까지 모집... 20개팀 선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임팩트스퀘어가 주관하는 '글로벌 임팩트프리너'가 아시아태평양 임팩트 스타트업 선발 및 육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임팩트 프리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회·환경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 단계를 넘은 검증 가능한 모델(프로토

타입·파일럿·PoC 중 하나) 보유한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다.

글로벌 임팩트 프리너는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선발되며, 본격적인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에 걸쳐 선발된 20개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아태지역 전문가 멘토링, 임팩트 측정 및 IR코칭, 글로벌 투자자 및 동료 스타트업과의 교류 등이 제공된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2012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임팩트기업육성과 임팩트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글로벌 임팩트 기업가를 양성하여 전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NDP, 임팩트스퀘어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카카오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카카오톡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문서 제공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영유아 검진표, 대사증후군 안내

문,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안내문,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 등 300종 이상의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추가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문서를 수신한다. 문서 열람 시에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참가팀 모집

총 상금 2억... 주제 '세이빙 더 어스'

한화그룹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과학 영재 발굴을 위해 '한화사이언스챌린지(Hanwha Science Challenge) 2026'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대회 주제는 '세이빙 더 어스(Saving the Earth)'다. 참가자들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고등학생 2명

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두 차례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한다.

총 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대상 1팀에 4000만원, 금상 2팀에 각 2000만원, 은상 2팀에 각 1000만원을 수여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과 부상이 마련됐다.

/원관희 기자 wkh@

### 인사

- ◆제일약품 (임원 승진) △임상의학본부장 이사 조민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장 승진) △의공학팀장 조원형
- ◆광주매일신문 (승진) △이사·편집국장 박은성

### 부음

- ▲변천수씨 별세, 김태섭씨 부인상, 김원기(하이닉스 NAND FA)씨·김현씨 부친상, 김현주(하이닉스 소재전략)씨 시부상, 이종훈(SBS 보도본부 네트워크팀 부장)씨 장인상=3일, 삼성서울병원장재식장 9호실, 발인 5일. 02-3410-3151

## 농심-네슬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커피·제과 등 오프라인 유통 협력

농심이 네슬레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3월부터 네슬레의 커피와 제과 카테고리 약 150개 제품의 국내 오프라인 유통을 시작한다.

농심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망과 네슬레의 브랜드 파워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이 맡게 될 커피 카테고리는

네슬레의 핵심 사업군 중 하나다. 농심은 홈카페 및 캡슐커피 성장 추세에 발맞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네슬레 제품을 주요 채널에 공급하며 매출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심은 네슬레 제과 브랜드 '킷캣'과 호텔, 레스토랑 등 푸드 서비스 채널 시장 확대를 위해 네슬레의 B2B 브랜드인 '매기(Maggi)', '부이토니(Buitoni)' 제품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유니참, 위생용품 누적 1000만장 기부

2013년부터 '쉐어 패드' 활동

LG유니참은 위생용품 나눔 캠페인 '쉐어 패드'를 통한 누적 기부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장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경기, 경북, 부산 지역에 생리대 21만 장과 기저귀 4만 장 등 총 25만 장의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LG유니참은 2013년부터 13번째

'쉐어 패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리대, 기저귀 등 필수 위생용품을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 유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LG유니참은 올해는 약 170만 장의 위생용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만 장 규모로 기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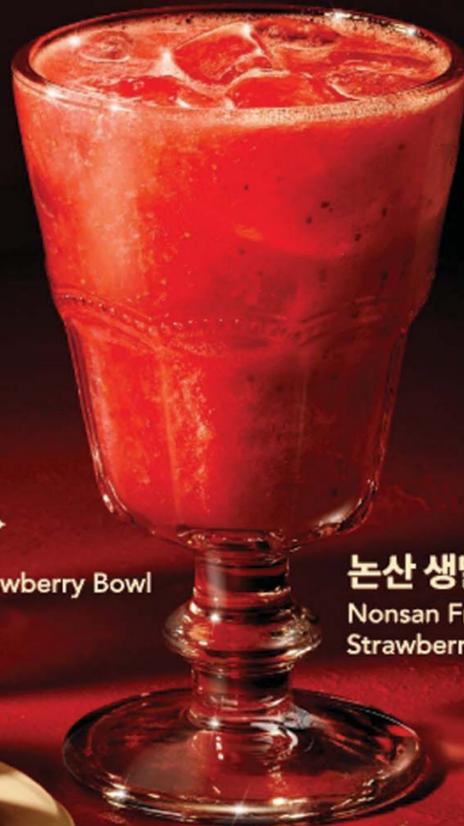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sup>+</sup>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 일본의 철도 여행용 지역특산 도시락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서점에서 '도시락 요리법' 혹은 '도시락 꾸미기' 책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도시락 관련 책이 베스트 셀러로 여러 권 진열된 모습을 보면, 역시 일본은 도시락에 진심인 나라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도시락을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다.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생활 구조와 문화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치원은 급식이 완전 의무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직접 싸준 보기 좋고 맛있는 도시락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부모는 경쟁적으로 도시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국보다 많다. 특히 도심의 빌딩 숲에 있는 회사는 직접 식당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지하에 있는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늘 붐비게 된다. 이 복잡한 곳을 벗어나 직접 준비해 온 도시락이나, 편의점 혹은 식당 앞에서 파는

도시락을 구입해 근처 조용한 공원을 찾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소비 절감이나 건강관리 그리고 개인 취향 등으로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런데 도시락이 단순히 점심 식사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 혹은 '여행'과 결합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독특한 문화를 만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에키벤(駅弁)이다. (에키는 철도 역을 뜻하며, 벤은 도시락의 줄임말이다.) 즉, '철도 여행용 지역 특산 도시락'이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철도망이 빠르게 확장되었고 장거리 이동에는 기차 이용이 일상화되었다. 이동 시간이 곧 식사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도시락이 철도문화와 접목되었는데, 1960년대 신칸센 개통 이후 전국 이동이 급증하면서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이 단순한 한 끼를 넘어 하나의 상품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도시락의 경쟁력은 '지역성'에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해산물, 고베는 소고기, 규슈는 닭고기처럼 각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도시락으로 담으면서 같은 도시락이지만 어느 역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재료와 구성을 유지하는 편의점 도시락과 달리 에키벤은 지역 특산물과 결합하여 차별화하고 있으며, 포장 디자인과 용기까지 지역 정체성을 담아 도시락 용기가 기념품이 되기도 한다.

동경역과 같은 대형 역에서는 지역 도시락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가 수시로 열리며, 심지어 전국 각지의 에키벤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공간도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지역 간 경쟁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철도라는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엮여 '이동형 지역 관광상품'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기차 안에서는 음식을 먹는 모습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에 기차 안에서 취식이 전면 금지되었던 영향으로 습관적으로 기차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기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발달했을 뿐 문화공간으로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매대에 놓여 있던 삶은 달걀이 지금도 그렇다.

/산언연구원 전문연구원

## 환율, 숫자보다 무서운 건 '리듬'



김주형  
(금융부)

중동 충돌이 격화되자 '달러 쇼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환전과 유가 급등 가능성이 겹치면 원·달러 환율은 레벨 자체보다 변동성으로 경계를 흔든다. 유가와 환율은 곧바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체감물가와 기대심리를 흔든다. 환율 쇼크가 '한 번의 스파이크'가 아니라 '반복되는 흔들림'이 될 때, 기업은 헤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고 가계는 장바구니에서 먼저 체감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6회 연속 동결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성장도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금융안정 리

스크가 지속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전망을 2.2%와 2.1%로 소폭 상향하면서, 향후 물가 경로가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 지금 한은의 속제는 '인하할까 말까'가 아니라, 환율 충격이 물가로 번지는 속도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다. 금리를 서둘러 내리면 원화 약세가 재점화돼 수입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꽉 쥐면 경기 회복의 숨통이 막힌다. 이 딜레마의 중심에 '환율의 속도'가 있다.

지난 2월 수출이 29% 늘어도(반도체 급증)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을 지켜주지 못한다. 더구나 곧 발표될 물가 지표는 시장의 '경계심'을 키운다. 환율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물가가 조

금만 뛰어도,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건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다.

필요한 건 방어선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룰'이다. 한은이 이번에 도입한 '점도표' 같은 경로 제시는 인하·동결을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금리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장 안정 조치와 메시지를 어떤 조건에서 조합할지를 함께 설계해 기대를 관리하는 장치여야 한다. 숫자를 던지면 시장은 그 숫자만 시험한다. 대신 룰을 보여주면, 시장은 '추측' 대신 '예상'으로 움직인다.

환율은 체온계가 아니라 심전도다. 1500원이라는 숫자보다 무서운 건 며칠 사이에 튀고 꺾이는 리듬이다. 1500을 두려워하기 전에, 흔들리는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 (음 1월 16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만남이 있으나 언쟁을 주의 해야 합니다. 60년생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72년생 일은 열심히 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84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49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61년생 신중하지 못하면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73년생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85년생 주변의 말을 듣지 말고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좋은 사람이 일을 도와 크게 성공합니다. 63년생 빛나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75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을게요.



52년생 주변사람들에게 인기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변화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76년생 고집을 버리고 주변얘기를 들으세요. 88년생 기본을 좀 가라앉히고 서두르지 마세요.



53년생 완성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성과가 생깁니다. 77년생 가는 길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89년생 운돈이나 칭찬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54년생 가족과 고민을 상의하세요. 66년생 분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뒀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55년생 서먹한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6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79년생 일거리가 밀려와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급한 중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56년생 시작이 반입니다. 68년생 남을 도와주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80년생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57년생 주변의 유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3년생 운은 좋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58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70년생 집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82년생 사방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94년생 사람이 하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59년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71년생 에너지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95년생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이불루 화이불치' 오랜 유래가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세간의 시선을 받고 있다. '검이불루'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는 뜻이고 '화이불치'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삼국사기에서 왔다. 백제 온조왕 때 궁궐 건축을 평가한 기록에서 유래한다. 궁궐의 모습이 검소하게 보이지만 누추하지는 않으며,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미적 감각에 대한 최상의 칭찬이다. 이 표현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기에도 적합하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건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검소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며 궁색하게 사는 것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검소함에서 중요한 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겉모습은 소박해도 그 속을 자기만의 철학으로 단단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단단함이 있을 때 그 삶은 누추해 보이지 않는다. 화려함은 자칫하면 과시하고 뽐내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사치스러움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려함은 뽐내는 게 아니라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 쉽다. 살면서 때로는 남보다 앞서가는 성공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런 때 뽐내고 과시하는 사람보다 진짜 화려한 사람은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은은하게 향기를 풍긴다. 그런 미학과 품격이 사람을 더 빛나게 한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소함에 매달려 스스로 누추함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과시에 취해서 사치스러움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백제의 궁궐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미학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   |   |   |   |   |   |   |
|---|---|---|---|---|---|---|
| 4 |   |   | 9 | 1 | 6 | 2 |
| 3 | 9 |   |   | 6 | 5 |   |
|   |   |   | 5 |   |   |   |
| 2 | 7 | 1 |   |   |   |   |
| 8 |   |   |   |   |   | 1 |
|   |   |   |   | 3 | 2 | 4 |
|   |   |   | 9 |   |   |   |
|   | 4 |   | 5 |   | 9 | 6 |
| 1 | 6 |   | 4 | 8 |   | 5 |

|   |   |   |   |   |   |   |
|---|---|---|---|---|---|---|
|   |   |   | 5 |   |   | 2 |
|   | 9 | 1 |   |   |   |   |
| 2 | 5 | 6 | 8 |   |   |   |
|   | 3 | 4 | 1 |   | 6 |   |
| 6 | 4 | 8 |   | 1 |   | 9 |
|   | 5 | 9 | 3 | 4 |   |   |
|   |   |   | 1 | 7 | 8 | 3 |
|   |   |   |   |   | 2 | 7 |
| 7 |   |   | 3 |   |   |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63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7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본선보다 뜨거운 단일화... 서울교육감 선거 구도 '윤곽'

진보, 정근식 교육감 포함 5인 경쟁 보수 진영, 100% 여론조사 확정 이달 말부터 4월 초 단일후보 결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일 후보 확정 여부가 사실상 본선 구도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양 진영은 '경선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말 단일화 경선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구도가 정리됐다. 그간 출마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단일화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경선 틀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강민정 전 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의 상임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5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정 교육감은 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 협약 등 단일화 일

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만큼, 교육 행정과 선거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3월 신학기 일정과 경선 일정이 겹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분열 없이 한 명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비교적 분명해, 절차 관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수 진영도 일찌감치 단일화 원칙을 세웠다.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 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후보 간 협의를 거쳐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정했다.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견주 전 한국교총 대변인,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중 토론회를 거쳐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선거인단 구성이나 전문가 평가 방식은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역량이 초반 판세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인 강해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번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단일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4~5세로 확대

교육부, 학부모 비용 부담 줄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액 차감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세배를 연습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 /뉴스1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약 50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0만 30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확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왔다.

지난해 지원 효과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가 늘어나고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과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학교폭력 학생선수, 대회 참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훈련과 경기 중 발생하는 학생선수 부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표준 대응 절차가 도입되고, 중상 사고는 48시간 이내 의무 보고 체계로 관리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는 물론, 선수 등록도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 학교운동부는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로 이어지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훈련을 줄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도 새로 마련됐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이라 하더라도 숙소와 훈련장에 대한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도민 체감 '교통혁신사업' 추진

2842억 들여 교통 효율 향상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은 곤지암·도척 일대를 연결하고 국도3호선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남부 사업벨트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성 공도~양성 구간은 굴곡지고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해 고삼 호수 접근성을 높인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은 선형개량,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 준공된 적성~두일 구간과 연결해 지역 내 물류 및 교통 효율을 향상시킨다.

또한 현재 공사·보상·설계 등 단계에 있는 계속사업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0 | 해짐 / 18:28

3월 4일 (수) 음력 : 1월 16일

수도권 날씨 1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10, 동두천 -2/12, 가평 -3/12, 파주 -4/11, 서울 1/11, 양평 -2/12, 수원 1/10, 용인 1/10, 평택 -1/11

백령도 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오픈시, 미국 국방부와 계약 수정... '대중 감시 금지' 조항 추가 /사진 뉴스  
▲3000만원 이란 드론 잡는데 59억 패트리엇 쏘...美 힘겨운 소모전

▲'반대 60%·사망 6명'에도...트럼프 "지상군 투입 '울렁증' 없다"  
▲미 USTR "한국, 디지털서비스법 대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2세대 스타링크, 지상망 수준 연결 목표"...스페이스X 공개  
▲마크롱 "핵탄두 보유량 늘리겠다"...유럽 핵우산 속도



중동 사태에  
유통업계  
리스크 관리  
너



Life

국내 제약바이오  
성인 탈모 치료제  
차별화 시도  
L2



# 라면으로 세계 정조준... 국내외 경계 허문 체질전환 주도

## CEO 와칭

###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

라면 한 그릇으로 세계 시장을 넓히려는 선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제시한 '비전 2030'은 글로벌 중심 체질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를 넘어 해외를 주무대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농심은 생산 인프라 확충과 현지 법인 설립,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전방위적인 글로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원부터 40여년 현장 누빈 경영자 연구개발, 글로벌 사업에 공 들여 생산·유통구조 익히며 해외전략 가속 현재 100여개국에 신라면 수출 성과

신 회장은 2021년 7월 창업주인故 신춘호 회장 별세 이후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오너 2세'라기보다 4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내부 경영자에 가깝다. 1979년 해외사업부 사원으로 입사해 동경지사장, 전무·부사장·사장, 그룹 부회장을 거쳤다. 신입 사원 교육부터 시작한 한 계단 한계단 절차를 밟으며, 2010년에는 지주사 농심홀딩스 대표이사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확정, 이후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신동원 농심 회장. /농심

#### 약력

1958년 1월 출생  
신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석사

- 1979년 주식회사 농심 입사
- 1994년 농심 전무이사
- 1996년 농심 부사장
- 1997년 농심 국제대표이사 사장  
농심 대표이사 사장
- 2000년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 2010년 농심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 2012년 농심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2021년 7월 농심그룹 회장

주도해왔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는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에 특히 공을 들여왔다. 1987년부터 4년간 일본 동경지사장을 자원해 근무하며 라면 발상지의 생산·유통 구조를 몸으로 익혔다. 이 경험은 이후 농심의 해외 전략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중국과 미국 매출이 급성장했고, 신라면은 현재 10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신라면블랙'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농심은 유행을 따르기 보다 일관된 판단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하얀국물 열풍 당시 시장점유율이 흔들렸을 때에도 기존 빨간국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단기 비판은 있었지만 트렌드가 빠르게 꺼지며 결과적으로 1위 지위를 지켜냈다.

최근에는 소비자 트렌드를 제품화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9월 출시한 '신라면 톰바'는 모디슈머 레시피를 간편식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출시 4개월 만에 2500만개 판매를 돌파했으며, 해외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하며 글로벌 확장도 병행 중이다.

신 회장이 제시한 중장기 청사진은 더 공격적이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농심은 경영 지침을 'Global Change & Challenge'로 정하고, 국내외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체질 전환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2030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두 배로 늘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61%까지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을 공식화했다. 미국 라면 시장 1위, 매출 15억 달러 달성도 목표에 포함된다.

생산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개 규모의 수출 전용 공장을 오는 하반기 완공한다. 기존 부산공장과 합치면 수출용 라면 생산능력은 연간 10억개로 두 배 늘어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올해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은 유럽과 일본이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농심 유럽' 법인을 설립하며 물류·영업 거점을 구축했다.

2025년 유럽 즉석라면 시장은 약 21억~22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농심의 유럽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설립 등 확장 전략을 통해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의 라면 수출액은 2019년 2500만 달러에서 2024년 8400만 달러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1억 달러대 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물면보다 볶음면 선호가 높은 현지 특성에 맞춰 신라면 톰바, 김치볶음면 등 비국물 제품을 전면 배치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 창립 60주년 맞아 '비전 2030' 제시 2030년까지 해외매출비중 61% 목표

### 생산인프라 확충, 현지법인 설립 속도 현지 특성 맞춰 유럽·일본 핵심 공략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등 신사업 확대

일본에서는 접근법이 다르다. 매운맛 체감 기준이 한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너구리'를 전략 상품으로 내세웠다. 한국에서 얼큰한맛과 순한맛 비중이 9대1이라면 일본은 7대3 수준으로 순한맛 선호가 높다. 현지 전용 제품 '못찌리 너구리 한국풍해물맛'을 출시하며 소비자 지면을 넓히고 있다. 일본법인 매출은 2020년 723억원에서 2024년 1064억원으로 증가했고, 현지 매출 200억 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동시에 신사업 확대도 병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 스마트팜 기반 농업 사업 등을 '3대 신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기존 라면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농심은 2020년 '베지가든'을 론칭했고 2022년에는 서울 잠실에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을 열었다. 스마트팜 사업은 2022년 오만에 컨테이너형 설비를 수출했고 사우디·카타르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라면 의존도를 낮추고 '제2의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각국의 식품 규제 강화 등 변수는 늘어나는 중이다. 수출 공장 증설과 해외 법인 확대가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신동원 농심 회장이 미국 제2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심 신동원 회장(왼쪽 첫번째)이 사내 아이디어공모전 '챌린지페어'에서 연구원들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

##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여자 배구 20명 숨졌다... F1도 급브레이크 위기  
▲'왕사남', 삼일절 연휴 220만 동원... 천만 영화 '초원기' /사진 뉴시스

▲김도영·안현민 흥런 폭발...WBC 대표팀, 오릭스와 평가전서 승리  
▲'알파고 대국' 10년 만에, 10년 만에 AI와 바둑 대국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 영국·독일·프랑스에서 유럽파 면담 후 귀국  
▲이정후, 2026시즌 안타 1개당 10만원 기부...장애 어린이가 돕는다